

이름의 매트릭스(Matrix)화

글 / 신 지 호 충남지회(회원NO.11694)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모든 사물은 이름을 줌으로 그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現象일뿐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이름이 떠오르면 머릿속에는 그 사물이 생각나는 것은 머릿속에 이름이 매트릭스(Matrix)화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름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 하게 된다. 만일 “산”이라는 이름- 참 존재나 사물을 부쳐준 표찰이나 기호가 없다면 우리 눈에 비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막연하게 눈에 비치는 것 일뿐 그것이 무엇일까 깨닫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럴 경우 “높이” 라거나 “숏아” 라거나 “있다”는 추상적인 기호들이 있다면 혹은 “무엇” 이라는 기호-언어가 있다면, 높이 숏아있는 무엇이냐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표식조차도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몽롱한 것으로 우리들은 그것을 산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산”은 산이라는 이름으로 하늘과 시내와 들판과 구별될 수 있고 또한 산으로써 인식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두 개의 세계 속 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實在 그것의 세계요, 다른 하나는 그것에 우리들이 마음대로 부쳐준 기호-이름의 세계이다.

-빛이 있으라하니 빛이 있고, 밝은 것을 낮이라 稱하고 어두운 것을 밤 이라 稱하니 밤과 낮이 있어서 아름답더라.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다 밝은 것을 낮이라 稱하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 稱하는- 이것이야말로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命名作業이며 또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낮 과 밤 이라는 이라는 이름을 얻음으로써 “있음”이 되어지는 것 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이름을 줌으로 그것을 나타내게 되고 이름은 존재를 밝히는 빛(Heidegger의 준말) 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물에 주어진 이름으로써 우리들이 가진 言語는 구체적

인 사물 그것이 아니다. 흔히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사과라는 이름은 實在의 사과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과나무에 열리는 모든 열매는 모두다 사과라고 불리울뿐 우리들에 눈에 비치는 바로 그 사과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비단 사과 뿐만 아니다. 산이든 내이든 나무이든 모든 이름들은 모두 추상적인 것 들이다. 산-평평한 땅보다 높이 우뚝하게 솟은땅, 새-날 짐승을 통털어 일컫는 말, 나무- 水木の 植物, 등등이 사전의 해석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접하는 모든 사물은 唯一性和 一回性を 지니는 구체적인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반적 개념적인 이름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산이나 새나 나무는 구체적인 것일 수 없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인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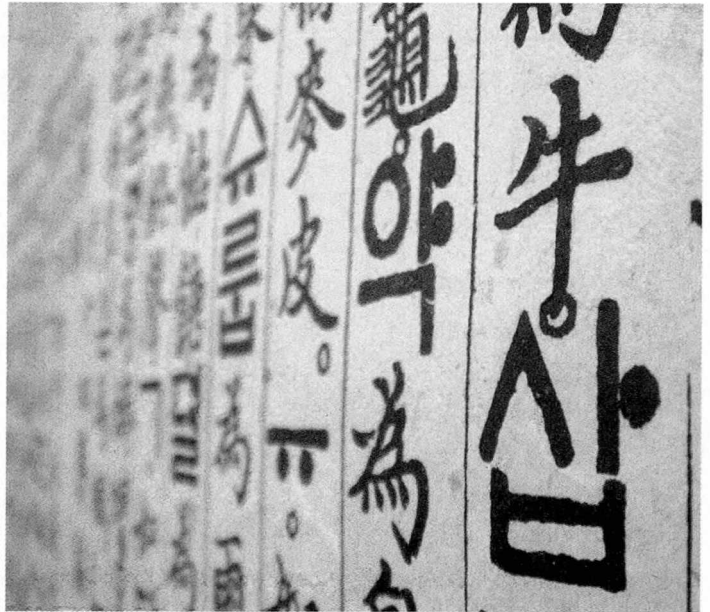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들의 겪게 되는 구체적인 경험의 세계나 그 생동하고 실감하는 감정세계나 우리들이 접하는 “참 존재”를 그것으로 표현하는 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물과 우리 사이에는 두터

은 知覺의 막이 이루어져 있다. 책상이라 불리우는 것은 책을 올려놓고 독서 또는 글을 쓴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면에서 그 존재의 기능이나 본질을 한정해 놓게되고 우리는 그것을 책상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것이 흔히 우리들이 “안다”는 것들이다 하지만 과연 책상이라는 하나의 사물과 인간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독서를 하거나 글을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 실로 그것은 우리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갖게되는 그 면에서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우리들이 그것을 선물로쓰게 되면 선사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부딪치면 장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게되면 발판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무쌍하고 무엇이 될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책을 올려놓고 독서 또는 글을 쓸 수 있는 것으로만 책상을 인식 하게 된다. 즉 통속적인 知覺의말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存在나 사물을 재빛의 세계속에서 인식하게 되는것이다.

詩는 사물과 우리사이에 다루어져 있는 통속적인 지각의 막을 찢고 상상한 감정이 밝혀주는 사물이나 존재의 새로운 이름을 부쳐주는 작업이며 그것을 부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존재는 내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것이 되는 것뿐이다.

-누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다오. 나는 그에게로 가서 하나의 잊혀지지않는 의미가 되고 싶다는 時句 처럼 모든사람이 열망하는 세계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새로이 이름을 붙이는 일에 너무나 조급하고 안이하고 無自覺적이다. “웰빙” “몸짱” “올인” “얼짱” “女子上位時代” 라거나 “完全結婚” 이라는 유행어 들은 매스컴에서 만들어낸 명칭들이다. 과연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발언이 존중되어진다하여 한마디로 女子上位時代(이말에는 지극히 불손한 암시가 깃들어 있지만) 라 단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혼인생활이 性으로서만 결합되며 또한 그것이 “完全結婚”이라 단정할 수 있을 것 인가. 참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뻔 에게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에게 “죄인” 이라는 이름을 부쳐주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죄인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 이다. 그렇다면 죄수나 죄인을 죄수나 죄인이라 부르지 않는 좀더 너그러운 이름이 없을까 감옥을 교도소라 부르는 아량과 배려가 죄수나 죄인이라는 이름에서도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시한번 電力技術人 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전기에너지를 응용하여 기술을 業으로 하는 사람들 아닌가. 공기, 물과 더불어 전기에너지는 1초만 없어도 아니되는 에너지이고 電力技術人 이름을 가지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專門家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